

## 클래식 선율 맞춰 환경을 그리다

지난 24일 염주초등학교 강당에서는 색다른 수업이 진행됐다. 3학년 1개반과 5학년 2개반 등 모두 100여명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느라 분주한 모습들이었고 강당에서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 나왔다.

아이들은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던 태안반도를 생각하며 자신들만의 상상력을 발휘, 그림을 그렸다.

이날 수업은 오는 29일 광주문화관 대극장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 광주필하머니 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김경양·이하 필하머니)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필하머니는 지난해 아이들과 '베토벤'을 주제로 한 음악회를 여는 등 관객과 함께 하는 음악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다.

이날 아이들은 그린 그림은 '태안반도'의 기름 때를 겨우는 위대한 피아노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음악회의 '또 다른' 주인공들이다.

**광주필하머니 '태안반도 기름 때 겨우는 음악회'**

**염주초등생들 음악 감상하며 '자연 사랑' 표현**

**29일 문예회관서 연주회와 함께 미술 전시전**

100여장의 그림은 공연이 열리는 광주문화회관 로비에 전시되며 태안의 모습과 아이들의 작품은 슬라이드로 만들어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상영될 예정이다.

필하머니는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는 '문화는 모두가 함께 만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다. 같은 음악회라고 해도 자신들이 어떤 형태로든 직접 참여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수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안반도'를 그림의 주제로 삼았던 것도 국민들의 작은 정성이 모이고 모여 많은 기름 때를 겨우냈듯, 문화라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이뤄질 때 아름답게 꽂힐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여기에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까지 일깨워 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주제다.

이날 미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흘러나온 음악은 29일 공연에서 연주될 피아노곡이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아예 29일 열릴 음악회 프로그램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

초등학생들이 듣기에는 다소 난해한 곡 대신, 아이들이 음악회의 '진짜'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려했다면 교육적 효과가 훨씬 크지 않을까 싶다.

기름 때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림으로 끊긴 강하연(12·염주초 5년) 양은 "내 그림이 로비에 전시된다고 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다"며 "음악회가 많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행사를 기획한 광주필하머니 김찬경씨는 "이번 행사를 마련한 의도



광주필하머니오케스트라가 기획한 미술 전시회에 참여할 염주초 학생들이 24일 강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는 '문화 참여'에 대한 마인드 확산에 있다"며 "작은 가치들이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참가자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묘숙씨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는 로시니의 '신데렐라' 서곡으로 문을 열며 생상의 '피아노협주곡 5번',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작품 54',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등이며 김사랑·정찬미·조혜원·김봄·신현미씨 등이 협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백운아트홀의 관객이 5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민의 문화 요람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발레 '호두까기 인형' 공연 모습. /백운아트홀 제공

## 광양제철 백운아트홀 '문화 요람'

**1992년 개관 이후 매월 2~3차례 공연**

**지역민 큰 호응... 관객 500만 돌파 눈앞**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운영하고 있는 백운아트홀이 500만명에 가까운 관객을 유치하며 지역민들의 문화 요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6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지난 1992년 개관한 백운아트홀은 지금까지 모두 200여건의 공연(전시·영화 포함)을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다녀간 관객객은 495만명에 달해 5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뮤지컬 '젊프', 키에프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윤도현 콘서트 등이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4월에는 '어린이 날'과 극단 백운 무대의 '매화 마을 이야기'를 무대에 올릴 계획

이다.

백운아트홀은 매달 2편의 영화를 선정, 영화 상영회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올해는 '우리 생애 최고 순간' '원스 어폰 어 타임', '마이 뉴 파트너' 등을 상영했다.

백운아트홀은 또 매년 몇 차례씩 소년 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과 농어촌 노인들을 초청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문화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백운아트홀에서 열리는 모든 공연은 포스코 홈페이지(www.posco.c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보통 1회 공연당 평균 신청률이 10대 1을 넘어 컴퓨터 추첨을 통해 초대권을 배부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세상을 읽어라 신문을 펼쳐라"

**신문의 날 표어·포스터 선정**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변용식)·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는 제52회 신문의 날(4월7일) 표어와 신문 주간 포스터를 선정, 26일 발표했다.

표어 부문에서는 최철식 씨의 '세상을 읽어라 신문을 펼쳐라'

가 대상, 김태호 씨의 '두 손에는 신문 두 눈에는 세상'과 진진욱 씨의 '오늘을 읽으면 내일이 보입니다'가 우수상으로 각각 뽑혔다.

시상식은 4월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치러지며 입장자에게는 부문별 50만~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연합뉴스

혔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황인찬·임진옥 씨의 공동작품 '신문은 힘을 키워줍니다' 시리즈가 대상, 원장운 씨의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밝힙니다'와 박예찬 씨의 '우리의 길잡이 네모난 나침반'이 최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4월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치러지며 입장자에게는 부문별 50만~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연합뉴스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무대에  
꼬끼아동극단 29일 서구문화센터

꼬끼아동극단이 어린이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를 무대에 올린다. 29일 낮12시, 오후 2시·4시 광주서구문화센터.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동화를 새롭게 창작·각색한 이번 작품은 잘 짜여진 무대와 화려한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뮤지컬이다.

화창하고 맑은 봄날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의 집을 짓기 위해 길을 나선다.

우연히 길을 가던 요리사 늑대는 돼지 요리에 관심을 갖게된다. 문의 062-952-878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공공도서관의 모든 책 '택배 대출'

**'책바다' 내달 1일부터 가능**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 도서를 전국 어느 곳에서나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거리에 상관없이 도서 택배비 4천500원만 내면 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 600여 개 공공도서관과 함께 도서관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상호대차서비스인 '책바다'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앙도서관은 지난 해 이를 위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 소재 25곳과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부 도서관을 핵친 전국 33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책바다'를 시행해 왔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찾은 도서관(A)에서는 원하는 자료를 구할 수 없지만 다른 공공도서관(B)에는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A에 신청해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이렇게 전국 도서관을 하나로 연결하면 책의 바다를 이루게 된다는 의미에서 공공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를 '책바다'로 정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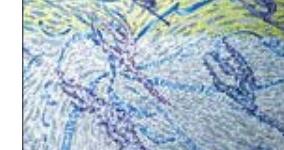
## 서양화가 정강임씨 두번째 개인전

**27일부터 무등갤러리**

서양화가 정강임씨가 27~4월2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연다. 무용수가 하늘로 날아갈 듯 춤을 추는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한 '비상' 시리즈를 선보인다.

지난해부터 '비상' 연작을 그리고 있는 정씨는 현실에 간직한 인간이 이상을 향해 날아가려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정씨는 한국의 빛(2008년·서울, 밀라노·제20회 국제 미술전시회)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08, 플라잉'

## 국민공인증개사

**핸 011-635-7939, 010-3114-6103**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혼자면은면 2층)

**검** 물 ◎주제물 5억 원월의원매매

대400P 건물과 지상층 주거사거는

◎79평 철근콘크리트

호텔도 누진 부동산 세율 등 대70P 건

2877 보석·의류 500만원

◎13억9천 일정 20×10m 코너

전대 후면 대10P 건320P

0938 1000 5000만원

◎12평 일정 30×6m 코너

보증금 1억 원500만원 포함

◎13억7천 원

대10P 건300P 보20×20m 월세15,000만원

◎상지역 13억 원

대40P 건300P 보20×10m 월세15,000만원

◎47억 일정

대600P 보10×10m 월세3000만원

임차금 1000만원 포함

◎26억 상지역 일정

대48P 건300P 보20×20m 월세18,000만원

◎41억 상지역 일정

대20P 건300P 보20×10m 월세2,000만원

◎47억 일정

대600P 보10×10m 월세3000만원

임차금 1000만원 포함

◎63억 원

대480P 건300P 보21×10m 월세4000만원

◎12억 원

공장부지 12,000㎡ 현지 공장 운영중

주유소 전문등록

0400P 혼자면은면 300만원

◎7억 원 고시원 급매

대115P 건240P 지하1층 1층 지상 1층

월세1012만원 전대후면

공장 급매

각화동에서 10분 6777번

대100P 건500P 건물과 혼자면은면 500만원

◎13억 원 고시원 급매

대115P 건240P 지하1층 1층 지상 1층

월세1012만원 전대후면

공장 급매

각화동에서 10분 6777번

대100P 건500P 건물과 혼자면은면 500만원

◎7억 원 고시원 급매

대115P 건240P 지하1층 1층 지상 1층

월세1012만원 전대후면

공장 급매

각화동에서 10분 6777번

대100P 건500P 건물과 혼자면은면 500만원

◎7억 원 고시원 급매